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4호 [루게 제25873호] 주제 106 (2017)년 12월 30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와 강습, 잠판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끝마치고 전투소스로 떠나는 당세포위원장을 위한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이 2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의 성스러운 행로에서 다섯 번째로 되는 당세포위원장의 대회합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뜻깊은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인 참가자들의 긍지와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영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대회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박광호동지, 김정해동지, 태종수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태성

동지, 최희동지, 박태덕동지, 김여정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당책임일꾼들이 공연을 보았다.

축하공연무대에 오른 예술인들은 줄기차고 역센 함도의 힘으로 사회주의조선을 이끌어 강국의 새시대를 열고 인민의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우리 당에 대한 송가들을 새롭게 창조형상하여

뜻깊은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위대한 당, 찬란한 주체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며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로 시작된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자주의 기치, 자강력 제일주의기치드높이 사회주의강국의 위상을 만방에 펼쳐가는 위대한 당에 드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무궁한 영광과 감사의 정을 담은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가 뜨겁게 울려졌다.

공연무대에는 경음악과 노래반곡 《우리애견 위대한 당이 있네》, 판현악과 여성중창 《대물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 여성독창과 방창 《당이어 나의 어머니

시여》, 여성3중창 《당을 따릅니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눈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혼성중창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여성독창 《내 심장의 목소리》, 가무 《행복의 폐일》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2 편 으 로 계 속

